금강경 7만독 원력, 장애인 불자 눈·귀 밝히다

법산 스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 기념 인도순례 현장

인도 기원정사=임은호 기자

부처님이 처음 〈금강경〉을 설한 인도 기원정사에 20여 불자들의 〈금강경〉 독송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국대 전 이사장이자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금강경〉 독송 7만독 성만을 기념하며 이를 찬탄하는 법석이 현지시간 1월 26일 오전 7시, 인도 중부 마가다 사위성 남쪽 기원정사에서 봉행됐다. 우렁찬 〈금강경〉 독송이 이어지자 새벽녘 어둠이 채 걷치지 않은 안개 자욱한 기원정사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졌다.

이번 법회가 특별한 것은 부처님 발자취를 좇아 1월 20~28일 8박 9일 일정 인도 순례에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 장애인불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 3명, 청각장애인 2명을 포함한 20여 명의 순례자들은 부처님께서 24안거를 보내며 처음 〈금강경〉을 설법한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활용한 법회를 봉행하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 오랜 기간 간절히 원했던 부처님 자취를 만나러 가는 길.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환희심은 더 컸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1988년 장애인 전범팀 원심회의 모태인 원심포교당을 설립하면서 연화원 해성 스님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청각장애인들에게 수어를 통해 법을 전해왔다.

정년퇴임 후 본격적으로 매달 둘째주 일요일 연화원 광림사를 방문, 장애인불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문을 설하고 있다. 경전뿐 아니라 다양한 점자 불교서적 발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불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인도 순례는 법산 스님이 2022년, 〈금강경〉 독송 6만독 회향 공덕을 연화원 불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됐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연화원 광림사 법당에 〈점자 금강경〉을 보시한 스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음 회향법회는 〈금강경〉이 처음 설해진 인도 기원정사에서 열고, 다 같이 〈금강경〉을 독송하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 해성 스님과 장애인불자들 가슴 한편에 서원이 세워진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막연했던 서원이 현실이 됐다. 기원정사에서 봉행된 이날

법산 스님, 장애인불자와 인도순례
기원정사서 금강경 독송 법회 봉행
참된 불자 서원 · 마음공부 다짐도
"차별 없는 세상 될 때까지 정진"

법회에서 순례자들은 수어와 점자로 〈금강경〉을 독송하며 〈금강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독송이 이어지는 동안 일부 순례자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흰 종이에 흰 점자로 가득해 얼핏 백지로 보이는 〈금강경〉을 품에 안고 손으로 정성껏 읽어 내려가는 시각장애불자들의 모습 자체가 뭉클한 감동을 전했기 때문이다.

20여 분 동안의 〈금강경〉 독송을 마친 장애인불자들의 얼굴에 감격과 환희심이 묻어났다.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점자로 〈금강경〉을 독송하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번 인도 순례에 동참할 수 있어 환희롭습니다" (양만석, 시각장애인)

"부처님이 법을 설한 장소에서 봉행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감개무량합니다. 부처님 가피와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의 원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송황주, 시각장애인)

역사의 현장에서 모든 순례자들은 순례단을 이끈 법산 스님에게 법문을 청해들었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스님은 "〈금강경〉은 우리나라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자 조계종의 모든 종도가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스스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참된 불자의 서원을 세워 열심히 마음공부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이룰 때까지 중단 없이 수행 정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해성 스님은 법산 스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법산 스님이 점자로 된 서적을 배포하는 데 물심양면 도움을 주셨기에 시각장애불자들이 부처님 법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인도 순례도 도전할 수 있었다"면서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야말로 참다운 정토이자 불국토"라면서 "장애인불자들이 걸림이 없는 순례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자를 찾아 먼 길을 걸어오셨을 석가모니 부처님. 그로부터 2600여 년이 훌쩍 넘은 뒤 아나율의 후예들이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인도에 왔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슴에 안은 순례자들은 이 길을 함께한 도반과 함께 또 다른 순례를 꿈꾸고 있다.


순례자들은 부처님께서 머무셨다는 기원정사 전각에서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하고 꽃 공양을 올리며 곧 다가올 〈금강경〉 10만독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시각장애인불자 양만석 거사가 〈점자 금강경〉을 손으로 읽어 내려가며 금강경을 독송했다.


해성 스님은 법산 스님의 법문을 수화로 전하며 청각장애인 불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순례자들은 각자의 발원을 담은 〈반야심경〉 사경지를 태우며 소원성취를 서원했다.


시각장애인불자들은 기원정사에 설치된 점자 안내판을 순례자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기원정사에서 태국불자들과 함께 법회를 봉행한 순례자들은 서로의 순례를 소개하며 부단한 정진을 응원했다.

9일간의 인도순례 이모저모

1월 20일~28일 진행된 이번 인도 순례에는 3일 전 군대를 제대한 2002년생부터 아흔아홉 살 백수(白壽) 노보살까지 다양한 불자들이 동참했다. 신심 나는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본다. 인도=임은호 기자

20년 도반부터 3代 불자까지…'佛心'으로 '한마음'


매일 아침저녁 예불을 집전한 해성 스님은 순례자들을 위한 축원도 잊지 않았다.

◇ **버스에서도 이어진 아침저녁 예불**

불심 충만 불자들의 인도 순례에 예불이 빠질 수 없었다. 해성 스님의 집전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2차례,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도 예불이 진행됐다. 예불은 삼귀의와 〈천수경〉 〈반야심경〉 봉독, 축원문과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해성 스님은 기도와 함께 순례자들을 위한 축원을 잊지 않았고 그날 그날의 주요 일정을 가사로 만들어 노래 공양 올려 순례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순례자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을 따라 열심히 정진해 가정과 사회의 목탁이 될 것을 부처님 성지 인도에서 두 손 모아 발원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외로운 이웃들 특히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는 불자들이 되겠다는 서원도 잊지 않았다.

◇ **시각장애인과 봉사자 20년 도반**

순례 내내 순례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 신광욱 불자(택시기사)가 "변진만 불자(시각장애인)의 첫 인도 순례에 함께하기 위해 택시 잠시 휴업하고 시민의 발을 묶어 놓고 따라왔다"며 쾌활하게 웃었다. 신광욱 불자는 30여 년 전 라디오에서 우연히 해성 스님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들의 발이 돼주기 위해 연화원을 찾았다. 나들이 봉사로 맺은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시각장애인들과 20년 넘게 매주 수요일 전국의 산을 오른다. 이제는 척하면 척인 이들은 귀한 인연을 심어준 불보살님의 지극한 은덕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탐진치로 지은 업장을 소멸케 발원하며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열심히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함께하며 척하면 척인 시각장애인 변진만 불자(왼쪽)와 신광욱 불자.


99세 노모와 함께한 5~60대 자매, 30대 손주까지 3대 불자의 동참이 눈길을 끌었다.

◇ **엄마, 딸, 손주까지…3代 불자**

30세 손자부터 58·60세 두 딸, 그리고 99세 노모까지. 이번 순례에 3대에 걸친 불자가족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스피치 코치로만 알고 있었던 이들은 나중에 보니 해성 스님의 속가 가족.

어머니의 지극한 신심으로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한 해성 스님이 출가해 장애인을 위한 법당을 마련하자 공양주 보살을 자청한 어머니는 올해 백수(白壽)를 맞았지만 여행 내내 꼿꼿했다. 수 시간 이동 중에도 쉬지 않고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고 성지에 도착해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순례를 시작했다.

건강 장수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99세의 노보살은 "기도"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다.

◇ **인도 순례의 비타민 청년불자들**

성지순례자들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라는 생각하는 건 고정관념일 뿐! 이번 인도 순례에는 스피치 코치, 고등학교 지리교사, 지하철 승무원, 인도 순례 3일 전 군에서 제대한 청년까지 직업도 나이도 다양한 2030 청년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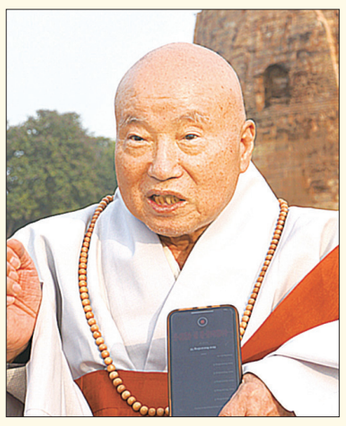
각자 처해진 상황은 달랐지만 이들이 순례에 참석한 이유는 같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불자들의 원활한 순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다.

이들은 순례 내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쏜살같이 나타나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해내 청년불자의 힘을 보여줬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청년들은 원활한 순례를 도우며 청년불자의 힘을 보여줬다.

"10만독 회향 때 인도서 또 만납시다"

인터뷰 | 법산 스님



세수로 올해 80세인 법산 스님〈사진〉이 최근 〈금강경〉 7만독을 성만했다. 2001년 11월, 부처님전에 금강경 10만독을 발원한 이래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은 정진으로 이룬 성과다. 스님은 매일 오전 3시 30분 일어나 예불을 드린 후 정구업진언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해왔다.

이번 7만독 성만이 더욱 뜻깊은 것은 이를 기념하며 장애인불자들과 함께한 인도 순례를 원만 회향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한 번씩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해온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어진 해성 스님과의 인연이 벌써 3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라면서 "해성 스님의 수화로 청각장애인들이 법문을 듣고, 또 힘 모아 편찬한 불교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법문을 읽는 모습은 언제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법산 스님은 공식 석상에서 종종 해성 스님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제자'라고 말한다. 오랜 세월 장애인불자들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제자가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깨닫는 바도 크다.

스님은 "점자로 금강경을 읽는 불자들의 목소리에서 나 역시도 초발심을 다시금 새긴다"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마음속에 품고 번뇌의 숲과 마음의 경계를 깨뜨리며 부처님 법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도 순례를 회향하며, 법산 스님은 20여 년 전 발원한 10만독 성만까지 이제 3분의 2를 마쳤다. 스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대중생활하고, 법문하면서 〈금강경〉 독송에 매진할 것"이라며 "10만독 회향 때 다시 인도에서 만나자"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도=임은호 기자